

국제곡물가 폭등 축산소득 최대 2,156억원 감소

농경연, 2007~2010년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 분석
‘식용 - 사료용 - 에너지용’ 곡물시장 3각구도 재편
양돈 배합사료 값 2010년 최대 518원/kg까지 상승 전망



국제곡물가격 폭등이 곡물 수입가격의 상승 및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해 결국 국내 축산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득감소액이 최대 2,1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12월 4일 서울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식용 - 사료용 - 에너지용’ 곡물시장 3각구도 재편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국제곡물가격이 급

등하는 가운데 곡물을 안정적인 곡물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국제곡물가의 상승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효

율적인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수요가 급증하여 옥수수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수요구조가 ‘식용 - 사료용’ 양대경쟁구도에서 ‘식용 - 사료용 - 에너지용’ 삼각경쟁구도로 바뀌어 생산이 소비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가격상승 압력이 상시화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 및 환율과 관련 2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축산부문 소득감소액은 최대 2,15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곡물가 폭등 축산소득 최대 2천억 감소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배합사료가격이 OECD 주요 곡물가격 전망치와 같이 2007년 단년도 상승하고 이후 연도부터 안정되는 상황을 가정, 환율은 2008년 900원, 2009~2016년 890원 가정) 양돈사료가격은 2008년 444원/kg, 2010년 471원/kg, 2016년 542원/kg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축산부문 소득감소액은 2007년에 1,077억9천만원, 2008년 1,266억6천만원, 2010년 490억8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2007~2010년 동안 지속되고, 환율이 2008년 이후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상황 가정)에는 양돈사료가격이 2008년 465원/kg, 2010년 518원/kg, 2016년 596원/kg까지 상승하면서, 축산부문 전체 소득감소액은 2007년 1,077억9천만원, 2008년 1,361억9천만원, 2010년 2,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곡물가격 상승과 함께 유가상승은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축 사육두수 감소 등 생산부문이 위축됨에 따라 축산업 및 축산농가 피해가 급격히 가중될 것”이라며 “국제사료곡물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수입선 다변화, 국내 논 및 유희지의 곡물재배 유도, 해외개발수입 등 국제적 생산기반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양돈 배합사료 값 2010년 최대 518원/kg까지 상승 전망

김 연구위원은 또 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곡물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국내 논 및 유희지의 곡물재배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남미 등 곡물 산지에 토지를 구입 또는 임대해 해외에 곡물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축종별로는 2010년에 양돈 사료가 kg당 518원, 육계 445원, 산란계 372원, 비육우 및 낙농이 369원으로 상승할 것을 내다봤다.

유영태 농협선물 본부장은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물시장 활용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곡물구매의 선물거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곡물구매 및 선물거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적 투자와 공동구매 공동용선시 개별업체 물량가격 결정 방식 선택권 부여, 국내선물거래소의 농산물 선물 조기 상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와 3부에서는 해외진출 사례와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코린도 서울사무소 오세운 사장이 ‘산림자원의 해외확보 경험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코린도그룹의 열대조림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아그로상생 유기농업연구소 정정철 부소장은 ‘아그로상생의 해외진출 사례’ 발표를 통해 아그로상생의 연해주 농업투자 사례와 향후 연해주 농업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장원낙농영농조합 박순철 대표는 장원낙농영농조합법인의 러시아 현지 농장개발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발표를 마치고 서울대 김완배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하였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창현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부장, 서종혁 한경대 초빙교수, 유병렬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장,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장, 이상철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장, 이영일 농협사료 부장,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부회장이 참여 하였다. **양돈**